

## 佛 라팔/타이거, 정부 장기조달 제안키로

프랑스 정부는 비용 절감을 위해 다소사의 '라팔' 전투기와 유로콥터사의 대전차 헬리콥터 '타이거'를 장기 조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의 제안은 또한 각 나라에 하나씩이 아니라 한 개의 생산 라인을 만들 것을 지지하고 있다.

예상치 못했던 움직임에 따라 프랑스 무기 조달청장인 JeanYves Helmer는 48대의 라팔과 80대의 타이거는 일회적 정부 조달물로 생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1대당 최소 10%의 비용 감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의 라팔을 조달하려는 계획은 15대를 구매하여(13대는 해군이 2대는 공군이 사용하기 위해) 2001년부터 인도받는다 것이다.

현재 논의는 생산 비용지원을 위한 은행 융자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다년간에 걸친 정부조달 옵션은 연간 12대씩 4년에 걸쳐 구매한다는 것이다.

유로콥터의 전무이사 Jean-Pierre Dubreuil은 장기간에 걸친 프랑스-독일간 타이거 조달에 대한 논의를 '...매우 환영하며...

우리는 한동안 그것을 요구받아 왔다'고 말했다. 계획에 따르면 각각의 정부는 80대씩의 헬리콥터를 장기 정부 조달하며, 프랑스와 독일 두 나라에서 조립하지 않고 동 계획의 비용 1.5%를 절감하기 위해 단일한 생산 라인에서 조립될 것이다.

## 러, 수호이기 제5세대 설계 추진

수호이 설계국은 러시아의 국방예산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된 '제5세대' 전투기 설계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동 설계국은 Su-32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Su-27 Flanker를 대체할 수 있는 설계를 생각하고 있다. 동체 설계에서 드러나는 가장 획기적인 요소는 큰 앞날개와 전진각(forward-swept)을 결합한 날개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트러스트-백터 기능과 함께 전진

각을 주는 것은 실속후 기동에 적합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Su-32 프로젝트는 개인적으로 수호이 설계국의 설계 책임자 미하일 시모노프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시모노프와 공군 원수 Col Gen Piort Deinekin는 올해 초에 Su-27 Flanker의 Su-27M 업그레이드와 Su-32를 포함하는 몇가지 계획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만났다.

Su-32 프로젝트의 상황이 어떠한가와는 상관없이 현재 러시아 공군은 제5세대 전투기 설계를 위한 상당한 자금을 지원할 상황이 아니다. VPK MAPO의 공군을 위한 미코얀 1.42 전투기 사업은 정지 상태에 있으며 현재 가지고 있는 원형에 대한 아무런 작업도 수행되고 있지 않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공군에게 제5세대 전투기가 우선이 될 수는 없으나 Su-27IB 형태의 적의 공격을 중단시킬 수 있는 공습용 전투기의 교체가 요구되고 있는



수호이 설계국의 미하일 시모노프는 Su-32를 다루기 위한 것이다

실정이다.

한편, 수호이설계국은 Flanker 기를 개량한 Su-27M의 시험비행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이란-중국, FB-7/8II 전투기 계약 협상

이란은 베이징과 협상중에 있는 수십억 달러 상당의 거래의 일부로써 중국의 Xian FB-7 공습용 항공기, Shenyang F-8III, Chengdu F-7 전투기의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45억달러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베이징과 테헤란 사이의 회담이 수 개월에 걸쳐 진행됐었다고 밝혔다. 만약 성사된다면 이번 거래는 중국의 최대 무기 수출계약이 될 것이다. 이번 계약에는 대함 미사일과 잠수함도 포함이 되어 있다.

동 거래를 통해 러시아와 서방의 항공기가 섞여있는 있는 이란의 공군의 전력이 상당히 증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 년간 이란은 러시아의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며 MiG-29 Fulcrum을 구매하였고, 이에 미국은 이러한 판매를 중단하고록 러시아에 압력을 가해왔다.

이번에 예상되는 FB-7기의 판매는 동 항공기의 운명에 전환점이 될 것이다. 최초 중국 공군과



이란을 겨냥한 F-8III

해군용의 공격용 항공기를 목적으로 했던 이 항공기의 개발은 이러한 타입을 운용하기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공군과의 마찰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다.

러시아의 도움으로 개발되고 있는 F-8III기는 수출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 이란, 유럽 도달 중거리 미사일 개발

이란은 북한의 노동 미사일을 모델로 유럽까지 충분히 도달할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독일의 빌트지가 정보소식통들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란정부가 사정거리 5천5백km의 이 미사일 개발 계획에 5억달러를 투자했다고 전했다.

이 미사일은 러시아의 스커드 미사일과 북한의 노동 미사일을 모델로 하고 있으며 독가스와 생물 작용제 뿐만 아니라 770kg의 핵탄두들을 운반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말했다.

나무와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 7백km 사정거리까지는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이 미사일은 해상이나 공중에서 발사될 수 있으며 매우 정확하다고 이 신문은 말했다.

### 中-터키, 미사일 합작생산 판매

중국은 미사일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터키와 1억5천만 달러 상당의 WS-1 중거리 미사일 판매 및 합작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홍콩의 星島日報가 보도했다.

중국은 사정거리 80km로 차량 탑재가 가능한 이 다연발 지대지 미사일 1기는 판매하고 나머지 5기는 터키에 생산 기술을 이전해 합작 생산키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터키는 지금까지 주로 미국에서 무기를 구입해왔으나 적대 관계인 그리스의 美의회 로비로 미국과의 군사협력 관계가 부진하자 무기 구입선을 중국으로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